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가 주관하는 전시 '네 번 접힌 미래'가 오는 9월22일까지 열린다. 전시에는 마종일, 엘리자베스 윈튼, 천재용, 정위상무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사진은 담 빛예술창고 내 갤러리에 전시된 엘리자베스 윈튼의 작품(왼쪽)과 담빛예술창고 야외에 설치된 마종일 작가의 작품. /담빛예술창고제공

"담양의문화적관심,후세대에좋은자산될것"

뉴욕서 활동하는 엘리자베스 윈튼·마종일 작가 담양서 전시

담빛예술창고서 '네 번 접힌 미래展 종이 콜라주·채색 대나무 작업 선봬 양 도시간 간극 작품으로 구현 초점

"아름다운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초대전을 갖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 는 공간에서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 습니다."(엘리자베스)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네 번 접힌 미래'에 참여하는 엘리자베스 윈튼 (Elizabeth Winton), 마종일 작가는 최근 진행 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네 번 접힌 미래'전은 두 작가 이외에도 천재 용, 정위상무 작가가 참여해 총 4명의 작가가 펼 치는 전시다. 작가 4인의 시선으로 본 미래의 모 습을 동시대 미술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엘리자베스와 마종일 작가는 미국 뉴욕을 기반 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다.

엘리자베스는 캔버스에 여러 색의 종이를 콜라 주해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하



엘리자베스 윈튼 작가 작품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작가들.

"일상 속 경험이나, 매일 다르게 만나는 빛 등 생활 속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자주 작품의 영감 을 받는 편이에요. 눈부신 자연이 있는 담양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 자연 속에서 평상시에 관찰해 왔던 것들을 작품으로 녹여내려고 고민했습니다. 특히 담양에서 머무르는 동안 창밖에서 들어오 는 빛, 얇은 종이로 비치는 색감들을 캔버스 위에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요."(엘리자베스)

마 작가는 나무를 소재로 하는 대형 설치작업 을 한다. 담양에선 빨강, 노랑, 파랑의 색으로 채 색한 대나무를 휘거나 늘어뜨리는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나무들을 소재로 한다면, 한국 전시에선 주로 대나무를 사용합니다. 담양 이 대나무의 고장이기도 하잖아요. 사람 손끝을 통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원하는 모양, 공간에 어울리는 설치작업을 하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 문이죠."(마종일)

특히 이 전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전시인 만 큼, 담양과 뉴욕이라는 두 도시간의 문화적 차이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저희들로선, 평소

에 봐왔던 대도시의 풍경에서 벗어나 담양의 자연 속에서 머무르면서 느낀 문화적 간극을 작품으로 녹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했습니다. 담양이라는 특별한 고장의 역사적·문화적 사실들 과 맞물려 뉴욕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을 현대미술 작가들이 발굴하고 소개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마종

전시가 열리는 담양은 문화 분야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로 잘 알려져 있다. 복합문화공간 '담빛예술창고'의 성공



엘리자베스 윈튼(왼쪽) 작가와 마종일 작가.

운영 사례를 발판 삼아 다음달 '해동문화예술촌' 이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 등 문화고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현대미술 전시에 걸맞 은 우수한 갤러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내 각 지자체에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듯 문 화 행사를 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담양군에서 진행하는 동시대 미술에 대한 관 심과 움직임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행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담양 내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전통과 굉장히 잘 연결되고 있다는 느 낌을 받았습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담양의 문 화적인 자산들을 녹여내고 있다는 점에서요. 이 런 동시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나 문화 분야에 대 한 투자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뤄졌을 경우, 후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문화적 자원이고 결실이 될 것입니다. 담양에서 수백년 전에 이뤄졌던 문 화를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것처럼 말이죠."(마

한편, '네 번 접힌 미래'전은 오는 9월22일까지 열린다. /정겨울기자 ACC·보안여관 공동기획

시네마테크아카이브작품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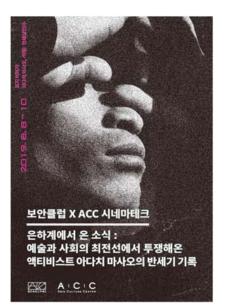
8-10일 서울 통의동 보안클럽

그동안 광주와 해외에서만 주로 소개 됐던 'ACC 시네마테크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작품들이 서울에서도 상영된

ACC 시네마테크가 통의동 보안여관 과 공동기획한 상영 프로그램 '은하계 에서 온 소식'(부제-예술과 사회의 최 전선에서 투쟁해 온 액티비스트 아다치 마사오의 반세기 기록)이 오는 8일부터 10까지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 내 보안 클럽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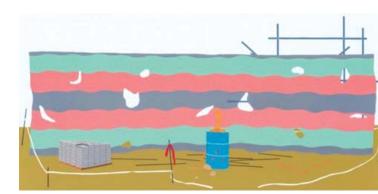
아다치 마사오는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대표 작가로 일본 최초의 초 현실주의 영화로 알려진 '은하계'(196 7), '풍경론'이라는 정치미학을 영상으 로 발전시킨 '약칭: 연쇄살인마'(1969), 적군파로 활동한 시절의 기록영상 '적 군/PFLP: 세계전쟁선언' 등 대표 작품 3편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영된다. 9일에는 영화상영과 함께 신은실 영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ACC는 지난 3년간 아시아의 실험영 화 300여편을 수집했고 주요 작품들의



필름 및 디지털 복원을 진행해왔다. 통 의동 보안여관에서 상영하는 아다치 마 사오의 작품들은 세계 최초로 원본 필 름을 복원해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 최 초의 초현실주의 영화로 기록돼 있는 작품 '은하계'는 2016년도에 복원된 필 름으로 국내에 처음 상영한 바 있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유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정겨울기자



고마음 作 '공사중-특별한준비 i

현대인에게 전하는 위로 '마음으로부터'展

청년작가 고마음 개인전 16일까지 리채갤러리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위 다. 누구나 마음 속 답답한 돌덩어리를 로를 전하는 전시가 마련된다.

청년작가 고마음 개인전이 오는 16일 까지 광주 리채갤러리(남구 제석로 12) 에서 열린다.

고마음 작가는 평온하고 따뜻했던 꿈 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평면회화를 제작한다.

작품 속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지 만, 오직 공간과 그 공간을 꾸며주는 소 품, 의인화된 동물들만 있다. 작품 안 공 간은 오직 관람객 한 사람만을 위한 공 간인 것이다.

작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스트레스가 없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

하나씩 두고 살아가는 요즘, 잠시나마 그 짐을 놓고 쉬어가도 된다고 말 하고 싶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무의 식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나만의 안식 처를 만들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 작가는 광주문화재단이 진 행하는 '2019문화예술편딩프로젝트 만 세만세 만(萬)만(滿)계'에 참여하여 네 이버 해피빈을 통해 5-6월 모금을 진행 했고, 목표한 150만원을 모금 한 달 만 에 조기달성했다. 이에 만만(滿滿)한 올해 첫 개인전을 맞이하며 고마음 이자 15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겨울기자

안개핀조경

호남최대 쿨링포그 전문기업! 안개핀조경(주)

쿨링포그 시스템은 고압 미세물입자를 분무하여 대기온도를 **최대 10℃ 낮춰주는 폭염, 미세먼지 대응 야외냉방장치**입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저감시켜줍니다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음이온이 **발생**됩니다

문의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36 | 062.381.3898 | 010.4890.3898 | www.coolfog.kr







🤗 행주행역시 趧 전라남도 Lift 한국로지역부부부 K음沢AIL 속 국립공원관리공단 🕝 환경부 💰 광주광역시동구 💂 광주광역시성구 🔯 광주광역시성구 🌠 광주광역시성구 🏋 광주광역시성구 🏋 광주광역시성구 🛣 생주광역시성구 💮 환경관 🐧 한경관 💮 한경관 🐧 한경관 💮 한경관 🖒 단양군 🕷 홍성군 다구 💮



